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와 노동연관효과

- 「2005년 산업연관표 부속 고용표」 기준 -

고용표는 일정 기간 동안 생산에 투입된 노동량과 최종수요에 의해 유발되는 노동량을 나타내며, 향후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수요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05년 산업연관표 부속 고용표」를 분석한 결과, 2005년 취업자 수는 2000년 대비 92만 5천명(+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형태별로는 기업들의 고용 유연성 강화로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는 농·어촌 인구 및 영세 도·소매점포 감소 등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산업별로는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취업자 비중은 상승한 반면, 제조업과 농림어업 비중은 하락하였고, 직종·학력·성별로는 전문직과 대졸이상 취업자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가 이어진 가운데 여성 취업자 비중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계수(산출액 10억원당 취업자 수)와 취업유발계수(최종수요 10억원당 유발 취업자 수)가 모두 하락세를 지속함에 따라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점차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경제의 주축인 수출의 취업유발계수가 소비와 투자에 비해 더 크게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출의 취업유발 비중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감안할 때 고용창출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아울러 고용의 질적 수준 개선 및 노동의 수급균형 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취업의 점진적 확대, 수출기업과 국내 부품 생산기업의 연계 강화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I. 고용표 개요

II. 2005년 취업구조

1. 개황
2. 취업구조
3. 피용자 수

III. 노동연관효과

1. 노동계수
2. 노동유발효과

IV. 시사점

I. 고용표 개요

고용표는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양적·질적 노동량과 최종수요에 의해 유발되는 노동량을 체계적으로 나타내며, 향후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수요 예측의 기초자료로 제공되어 인력수급 계획 및 거시경제 정책 수립에 활용된다.

고용표에 사용되는 노동량은 양적 지표(취업자, 피용자, 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와 질적 지표(직업별, 학력별, 성별)로 구분되며, 투입 노동량의 측정단위는 연간기준 인원(man-year)¹⁾이다.

「2005년 고용표」는 「2005년 산업연관표」와 동일한 부문분류²⁾를 사용함으로써 두 가지 표의 상호 연계가 가능하며, 고용표 상의 취업·고용계수와 취업·고용유발계수는 2005년 가격으로 작성된 1995-2000-2005년 접속 불변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도출되었다.

1) 사업체 조업기간과 근로자 근무기간을 감안하여 투입 노동량을 1년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6개월만 조업한 사업체의 근로자 1명과 1년 동안 계속 조업한 사업체에서 6개월만 근무한 근로자 1명은 각각 연간 기준인원으로는 0.5명으로 환산된다.

2) 28부문, 78부문, 168부문을으로 구분 작성된다.

II. 2005년 취업구조

1. 개황

2005년 취업자³⁾ 수는 외환위기 영향을 받았던 2000년에 비하여 925천명(+5.5%) 늘어난 17,602천명으로 나타나, 1995~2000년중의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되었다. 전체 취업자는 피용자⁴⁾ 12,381천명, 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 5,220천명으로 구성된다.

2000년에 비해 피용자는 1,633천명(+15.2%) 증가하였으나 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는 농·어촌 인구 및 영세 도·소매점포 감소 등으로 707천명(-11.9%)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에서 피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8%포인트 상승한 반면 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같은 폭만큼 하락하였다.

한편 피용자 중에서는 임시·일용직이 2000년에 비해 977천명(+43.7%) 늘어난 데 비해 상용직은 656천명(+7.7%) 증가하는 데에 그쳤는데, 이는 기업들이 고용의 유연성 강화 등을 위해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을 더 선호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95년	2000년	2005년	증 감	
				'95~'00	'00~'05
피 용 자	11,387 (66.2)	10,749 (64.5)	12,381 (70.3)	-638 [-5.6]	1,633 [15.2]
상 용 직	9,538 (55.5)	8,515 (51.1)	9,171 (52.1)	-1,023 [-10.7]	656 [7.7]
임시·일용직	1,849 (10.8)	2,234 (13.4)	3,211 (18.2)	385 [20.8]	977 [43.7]
자 영 업 주 · 무급가족종사자	5,810 (33.8)	5,928 (35.5)	5,220 (29.7)	118 [2.0]	-707 [-11.9]
합 계	17,197(100.0)	16,677(100.0)	17,602(100.0)	-520 [-3.0]	925 [5.5]

주 : 1) ()내는 구성비
2) []내는 기간중 증감률

3) 취업자는 피용자와 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다.

4) 임금 근로자로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으로 구성된다.

2. 취업구조

가. 산업별

2005년 취업구조를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전체의 61.8%인 10,873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제조업 3,236천명(18.4%), 농림어업 1,830천명(10.4%), 건설업 1,576천명(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과 비교하면 서비스업(+899천명)이 증가세를 지속한 가운데 건설업(+328천명)과 제조업(+121천명) 취업자수는 증가로 반전되었고, 농림어업(-415천명)의 경우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2000~2005년중 취업자의 구성 변동을 살펴보면 서비스업(+2.0%p)과 건설업(+1.5%p)의 경우 비중이 상승하였으나, 농림어업(-3.1%p)과 제조업(-0.3%p) 비중은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한편, 2005년 제조업과 서비스업 취업자를 세부 업종별로 2000년과 비교해 보면 제조업의 경우 수송장비(+67천명), 금속제품(+65천명), 전기·전자기기(+57천명), 화학제품(+54천명) 등의 업종에서 소폭 증가한 반면, 섬유·가죽제품(-154천명) 취업자는 비교적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부동산·사업서비스(+578천명), 교육·보건(+426천명), 운수·보관(+158천명) 등의 업종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으나, 도·소매(-154천명), 금융·보험(-149천명) 등의 업종은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산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p)

	1995년	2000년	2005년	증 감	
				'95~'00	'00~'05
농림어업	2,498 (14.5)	2,245 (13.5)	1,830 (10.4)	-253 (-1.1)	-415 (-3.1)
광업	44 (0.3)	19 (0.1)	17 (0.1)	-25 (-0.1)	-2 (-0.0)
제조업	3,976 (23.1)	3,115 (18.7)	3,236 (18.4)	-861 (-4.4)	121 (-0.3)
음식료품	381 (2.2)	283 (1.7)	281 (1.6)	-98 (-0.5)	-2 (-0.1)
섬유·가죽제품	782 (4.5)	511 (3.1)	356 (2.0)	-271 (-1.5)	-154 (-1.0)
목재·종이제품	132 (0.8)	106 (0.6)	101 (0.6)	-25 (-0.1)	-5 (-0.1)
인쇄·복제	56 (0.3)	50 (0.3)	63 (0.4)	-5 (-0.0)	12 (0.1)
석유·석탄제품	25 (0.1)	18 (0.1)	14 (0.1)	-7 (-0.0)	-4 (-0.0)
화학제품	436 (2.5)	324 (1.9)	378 (2.1)	-112 (-0.6)	54 (0.2)
비금속광물제품	186 (1.1)	109 (0.7)	103 (0.6)	-77 (-0.4)	-6 (-0.1)
제1차금속제품	170 (1.0)	112 (0.7)	119 (0.7)	-58 (-0.3)	6 (-0.0)
금속제품	262 (1.5)	225 (1.3)	290 (1.6)	-38 (-0.2)	65 (0.3)
일반기계	359 (2.1)	311 (1.9)	345 (2.0)	-48 (-0.2)	35 (0.1)
전기·전자기기	550 (3.2)	559 (3.4)	616 (3.5)	9 (0.2)	57 (0.1)
정밀기기	67 (0.4)	62 (0.4)	82 (0.5)	-5 (-0.0)	20 (0.1)
수송장비	389 (2.3)	311 (1.9)	377 (2.1)	-78 (-0.4)	67 (0.3)
기타제조업제품	182 (1.1)	133 (0.8)	111 (0.6)	-48 (-0.3)	-23 (-0.2)
전력·가스·수도	71 (0.4)	75 (0.4)	69 (0.4)	3 (0.0)	-6 (-0.1)
건설업	1,372 (8.0)	1,249 (7.5)	1,576 (9.0)	-123 (-0.5)	328 (1.5)
서비스	9,235 (53.7)	9,974 (59.8)	10,873 (61.8)	739 (6.1)	899 (2.0)
도·소매	2,653 (15.4)	2,851 (17.1)	2,697 (15.3)	198 (1.7)	-154 (-1.8)
음식·숙박	1,191 (6.9)	1,370 (8.2)	1,398 (7.9)	179 (1.3)	28 (-0.3)
운수·보관	752 (4.4)	798 (4.8)	956 (5.4)	46 (0.4)	158 (0.6)
통신·방송	121 (0.7)	144 (0.9)	152 (0.9)	23 (0.2)	8 (-0.0)
금융·보험	812 (4.7)	699 (4.2)	550 (3.1)	-114 (-0.5)	-149 (-1.1)
부동산·사업서비스	847 (4.9)	963 (5.8)	1,541 (8.8)	116 (0.9)	578 (3.0)
공공행정·국방	678 (3.9)	675 (4.0)	700 (4.0)	-4 (0.1)	25 (-0.1)
교육·보건	1,205 (7.0)	1,424 (8.5)	1,850 (10.5)	220 (1.5)	426 (2.0)
사회·기타서비스	976 (5.7)	1,050 (6.3)	1,028 (5.8)	74 (0.6)	-22 (-0.5)
전 산업	17,197 (100.0)	16,677 (100.0)	17,602 (100.0)	-520 (-)	925 (-)

주 : 1) ()내는 구성비

나. 직업별

2005년 취업구조를 직업별로 보면 전문직이 6,164천명, 일반직이 11,438천명으로 나타나, 전체 취업자 가운데 각각 35.0%와 65.0%를 차지하였다. 2000년과 비교하면 직종 전문화 추세를 반영하여 전문직(+986천명)이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포인트 상승한 반면, 일반직은 감소세(-60천명)를 지속하였다.

산업별로는 2000년에 비해 대부분의 산업에서 전문직 취업자가 증가한 가운데 특히 서비스업(+652천명), 제조업(+230천명)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전문직 취업자의 비중도 대부분 상승하였다.

〈표 3〉

직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p)

	1995년		2000년		2005년		증 감			
							'95~'00		'00~'05	
	전문직	일반직	전문직	일반직	전문직	일반직	전문직	일반직	전문직	일반직
농림어업	22 (0.9)	2,476 (99.1)	14 (0.6)	2,230 (99.4)	10 (0.5)	1,820 (99.5)	-8 (-0.2)	-246 (0.2)	-5 (-0.1)	-410 (0.1)
광업	11 (25.0)	33 (75.0)	2 (10.5)	17 (89.5)	4 (22.4)	13 (77.6)	-9 (-14.5)	-16 (14.5)	2 (11.9)	-4 (-11.9)
제조업	1,025 (25.8)	2,950 (74.2)	853 (27.4)	2,262 (72.6)	1,083 (33.5)	2,153 (66.5)	-172 (1.6)	-689 (-1.6)	230 (6.1)	-109 (-6.1)
전력·가스·수도	44 (62.0)	27 (38.0)	43 (58.1)	31 (41.9)	47 (68.2)	22 (31.8)	-1 (-3.9)	4 (3.9)	4 (10.1)	-9 (-10.1)
건설업	305 (22.2)	1,067 (77.8)	305 (24.4)	944 (75.6)	407 (25.8)	1,169 (74.2)	0 (2.2)	-123 (-2.2)	102 (1.4)	225 (-1.4)
서비스업	3,444 (37.3)	5,791 (62.7)	3,960 (39.7)	6,015 (60.3)	4,612 (42.4)	6,261 (57.6)	516 (2.4)	223 (-2.4)	652 (2.7)	246 (-2.7)
전산업	4,852 (28.2)	12,345 (71.8)	5,178 (31.0)	11,498 (69.0)	6,164 (35.0)	11,438 (65.0)	326 (2.8)	-846 (-2.8)	986 (4.0)	-60 (-4.0)

주 : 1) ()내는 구성비

2) 전문직 : 의회의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등

일반직 :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

다. 학력별

2005년 취업구조를 학력별로 보면 대졸이상이 전체 취업자의 32.2%인 5,664천명, 고졸이하가 67.8%인 11,938천명을 차지하였다. 2000년과 비교하면 대졸이상(+1,475천명)의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1%포인트나 상승한 반면, 고졸이하(-551천명)는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산업별로는 2000년에 비해 모든 산업에서 대졸 취업자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비중도 상승하여, 산업 전반에 걸친 취업자의 고학력화가 지속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학력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p)

	1995년		2000년		2005년		증 감			
	대졸 이상	고졸 이하	대졸 이상	고졸 이하	대졸 이상	고졸 이하	'95~'00		'00~'05	
							대졸 이상	고졸 이하	대졸 이상	고졸 이하
농 립 어 업	51 (2.1)	2,446 (97.9)	61 (2.7)	2,184 (97.3)	73 (4.0)	1,757 (96.0)	10 (0.7)	-263 (-0.7)	11 (1.2)	-427 (-1.2)
광 업	3 (6.8)	41 (93.2)	1 (5.3)	18 (94.7)	5 (29.1)	12 (70.9)	-2 (-1.6)	-23 (1.6)	4 (23.8)	-6 (-23.8)
제 조 업	660 (16.6)	3,316 (83.4)	671 (21.5)	2,444 (78.5)	967 (29.9)	2,270 (70.1)	11 (4.9)	-872 (-4.9)	296 (8.3)	-174 (-8.3)
전 력 · 가 스 · 수 도	23 (32.4)	48 (67.6)	33 (44.0)	42 (56.0)	45 (65.4)	24 (34.6)	10 (11.6)	-6 (-11.6)	12 (21.4)	-18 (-21.4)
건 설 업	208 (15.2)	1,164 (84.8)	255 (20.4)	994 (79.6)	407 (25.8)	1,169 (74.2)	47 (5.3)	-170 (-5.3)	152 (5.4)	175 (-5.4)
서 비 스	2,363 (25.6)	6,873 (74.4)	3,167 (31.8)	6,808 (68.2)	4,167 (38.3)	6,706 (61.7)	805 (6.2)	-65 (-6.2)	1,000 (6.6)	-102 (-6.6)
전 산 업	3,308 (19.2)	13,888 (80.8)	4,189 (25.1)	12,489 (74.9)	5,664 (32.2)	11,938 (67.8)	880 (5.9)	-1,399 (-5.9)	1,475 (7.1)	-551 (-7.1)

주 : 1) ()내는 구성비

라. 성 별

2005년 취업구조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전체 취업자의 59.5%인 10,472천명, 여성이 40.5%인 7,130천명으로 나타났다. 2000년과 비교하면 여성 취업자(+206천명)의 증가세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취업자(+717천명)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여성 취업자 비중이 1.0%포인트 하락하였다.

산업별로 보면 여성 취업자가 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어난 데 비해, 남성 취업자의 경우 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고르게 증가하였다.

<표 5> 성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p)

	1995년		2000년		2005년		증 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95~'00		'00~'05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농 립 어 업	1,313 (52.6)	1,185 (47.4)	1,171 (52.2)	1,074 (47.8)	969 (52.9)	861 (47.1)	-142 (-0.4)	-111 (0.4)	-203 (0.8)	-213 (-0.8)
광 업	40 (90.9)	4 (9.1)	19 (100.0)	0 (0.0)	16 (90.2)	2 (9.8)	-21 (9.1)	-4 (-9.1)	-3 (-9.8)	2 (9.8)
제 조 업	2,592 (65.2)	1,384 (34.8)	2,061 (66.2)	1,054 (33.8)	2,206 (68.2)	1,030 (31.8)	-531 (1.0)	-330 (-1.0)	145 (2.0)	-24 (-2.0)
전 력 · 가 스 · 수 도	59 (83.1)	12 (16.9)	62 (82.7)	13 (17.3)	57 (82.3)	12 (17.7)	3 (-0.4)	1 (0.4)	-5 (-0.3)	-1 (0.3)
건 설 업	1,240 (90.4)	132 (9.6)	1,143 (91.5)	106 (8.5)	1,439 (91.3)	137 (8.7)	-97 (1.1)	-26 (-1.1)	296 (-0.2)	31 (0.2)
서 비 스	5,119 (55.4)	4,116 (44.6)	5,298 (53.1)	4,677 (46.9)	5,785 (53.2)	5,088 (46.8)	179 (-2.3)	561 (2.3)	487 (0.1)	411 (-0.1)
전 산 업	10,363 (60.3)	6,833 (39.7)	9,754 (58.5)	6,924 (41.5)	10,472 (59.5)	7,130 (40.5)	-609 (-1.8)	91 (1.8)	717 (1.0)	206 (-1.0)

주 : 1) ()내는 구성비

3. 사용자 수

2005년 우리나라의 사용자(임금 근로자) 현황을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 수가 전체의 61.7%인 7,642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제조업 2,917천명(23.6%), 건설업 1,563천명(12.6%), 농림어업 174천명(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과 비교할 때 서비스업(+1,154천명) 사용자가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였고, 건설업(+377천명)과 제조업(+113천명) 사용자의 경우 증가로 반전되었다.

2000~2005년 기간중 사용자의 구성 변동을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1.6%p)과 서비스업(+1.4%p) 비중은 상승한 반면, 제조업(-2.5%p) 비중은 하락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용자를 세부 업종별로 2000년과 비교해 보면 제조업의 경우 수송장비(+64천명), 전기·전자기기(+55천명), 금속제품(+54천명), 화학제품(+51천명) 등의 업종이 소폭 늘어난 반면, 섬유·가죽제품(-147천명) 사용자는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부동산·사업서비스(+596천명), 교육·보건(+425천명)이 다소 크게 증가하는 등 대부분 업종에서 늘어났으나, 금융·보험(-149천명)의 경우 비교적 큰 폭의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표 6〉

산업별 피용자 추이

(단위 : 천명, %, %p)

	1995년		2000년		2005년		증 감			
							'95~'00	'00~'05		
농 립 어 업	267	(2.3)	179	(1.7)	174	(1.4)	-88	(-0.7)	-4	(-0.3)
광 업	44	(0.4)	17	(0.2)	16	(0.1)	-27	(-0.2)	-1	(-0.0)
제 조 업	3,734	(32.8)	2,805	(26.1)	2,917	(23.6)	-929	(-6.7)	113	(-2.5)
음 식 료 품	324	(2.8)	208	(1.9)	203	(1.6)	-116	(-0.9)	-5	(-0.3)
섬유 · 가죽 제품	701	(6.2)	445	(4.1)	298	(2.4)	-256	(-2.0)	-147	(-1.7)
목재 · 종이 제품	125	(1.1)	92	(0.9)	89	(0.7)	-33	(-0.2)	-3	(-0.1)
인쇄 · 복제	53	(0.5)	42	(0.4)	52	(0.4)	-12	(-0.1)	10	(0.0)
석유 · 석탄 제품	25	(0.2)	18	(0.2)	14	(0.1)	-7	(-0.1)	-4	(-0.1)
화학 제품	424	(3.7)	310	(2.9)	360	(2.9)	-114	(-0.8)	51	(0.0)
비금속 광물 제품	182	(1.6)	100	(0.9)	95	(0.8)	-81	(-0.7)	-5	(-0.2)
제 1 차 금속 제품	168	(1.5)	108	(1.0)	115	(0.9)	-61	(-0.5)	7	(-0.1)
금속 제품	225	(2.0)	188	(1.7)	241	(2.0)	-38	(-0.2)	54	(0.2)
일 반 기 계	349	(3.1)	285	(2.6)	318	(2.6)	-65	(-0.4)	34	(-0.1)
전기 · 전자 기기	536	(4.7)	543	(5.0)	597	(4.8)	7	(0.3)	55	(-0.2)
정밀 기기	65	(0.6)	57	(0.5)	77	(0.6)	-8	(-0.0)	19	(0.1)
수송 장비	383	(3.4)	305	(2.8)	369	(3.0)	-78	(-0.5)	64	(0.1)
기타 제조업 제품	173	(1.5)	104	(1.0)	87	(0.7)	-69	(-0.6)	-17	(-0.3)
전력 · 가스 · 수도	71	(0.6)	75	(0.7)	69	(0.6)	3	(0.1)	-6	(-0.1)
건설업	1,310	(11.5)	1,186	(11.0)	1,563	(12.6)	-124	(-0.5)	377	(1.6)
서비스	5,961	(52.4)	6,488	(60.4)	7,642	(61.7)	526	(8.0)	1,154	(1.4)
도 · 소매	942	(8.3)	1,170	(10.9)	1,236	(10.0)	228	(2.6)	66	(-0.9)
음식 · 숙박	557	(4.9)	595	(5.5)	655	(5.3)	38	(0.6)	60	(-0.2)
운수 · 보관	580	(5.1)	580	(5.4)	659	(5.3)	-0	(0.3)	79	(-0.1)
통신 · 방송	119	(1.0)	139	(1.3)	148	(1.2)	20	(0.2)	10	(-0.1)
금융 · 보험	806	(7.1)	694	(6.5)	545	(4.4)	-112	(-0.6)	-149	(-2.1)
부동산 · 사업서비스	631	(5.5)	793	(7.4)	1,389	(11.2)	162	(1.8)	596	(3.8)
공공 행정 · 국방	678	(6.0)	675	(6.3)	700	(5.7)	-4	(0.3)	25	(-0.6)
교육 · 보건	1,075	(9.4)	1,264	(11.8)	1,690	(13.6)	189	(2.3)	425	(1.9)
사회 · 기타 서비스	572	(5.0)	577	(5.4)	619	(5.0)	5	(0.3)	43	(-0.4)
전 산 업	11,387	(100.0)	10,749	(100.0)	12,381	(100.0)	-638	(-)	1,633	(-)

주: 1) ()내는 구성비

Ⅲ. 노동연관효과

1. 노동계수

가. 취업계수

2005년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취업계수⁵⁾는 8.7(명/10억원, 이하 같음)을 기록하였다. 동 계수는 설비투자 증가 및 기술수준 향상 등에 따른 노동 생산성의 개선으로 1995년(14.8), 2000년(10.9)에 이어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하락 속도는 이전에 비해 다소 둔화되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의 취업계수가 42.6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다음으로 서비스업(13.1), 건설업(10.5)의 순이며, 제조업(3.4)의 경우 전력·가스·수도(1.5)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제조업에서는 인쇄·복제(8.9), 섬유·가죽제품(8.6), 기타제조업제품(8.1), 정밀기기(7.2) 등의 업종에서 취업계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석유·석탄제품(0.2), 제1차금속제품(1.0), 화학제품(2.7) 등의 업종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서비스업에서는 도·소매(25.4), 음식·숙박(24.7), 사회·기타서비스(17.5), 교육·보건(16.0) 등의 업종이 높았고, 통신·방송(3.1), 금융·보험(6.2) 등의 업종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2000년 대비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의 평균 취업계수는 연평균 4~5% 정도 하락하였으나, 건설업의 경우 노동 생산성 향상이 여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5) 불변가격 산출액 10억원당 소요되는 취업자 수[취업자 수(명)÷산출액(10억원)]를 의미하며 노동 생산성의 역수 개념이다.

〈표 7〉

산업별 취업계수 추이

(단위 : 명/10억원, %)

	1995년	2000년	2005년	연평균 증감률	
				'95~'00	'00~'05
농 립 어 업	62.6	52.7	42.6	-3.4	-4.2
광 업	9.9	5.8	5.4	-10.1	-1.4
제 조 업	7.5	4.4	3.4	-10.1	-5.0
음 식 료 품	6.2	4.1	3.9	-7.9	-1.0
섬유 · 가죽 제품	19.9	11.3	8.6	-10.7	-5.3
목재 · 종이 제품	7.5	6.2	5.2	-3.7	-3.5
인쇄 · 복제	12.5	10.7	8.9	-3.1	-3.6
석유 · 석탄 제품	0.4	0.2	0.2	-12.9	0.0
화학 제품	5.9	3.0	2.7	-12.7	-2.1
비금속 광물 제품	9.4	6.0	4.3	-8.6	-6.4
제1차 금속 제품	2.3	1.2	1.0	-12.2	-3.6
금속 제품	10.0	8.1	6.6	-4.1	-4.0
일반 기계	10.0	7.1	5.0	-6.6	-6.8
전기 · 전자 기기	12.7	5.8	3.2	-14.5	-11.2
정밀 기기	14.2	9.7	7.2	-7.3	-5.8
수송 장비	6.9	3.8	2.9	-11.2	-5.3
기타 제조업 제품	19.1	12.7	8.1	-7.8	-8.6
전력 · 가스 · 수도	3.3	2.2	1.5	-7.8	-7.4
건설업	9.2	10.1	10.5	1.9	0.8
서비스	21.9	15.9	13.1	-6.2	-3.8
도 · 소매	42.1	35.2	25.4	-3.5	-6.3
음식 · 숙박	40.2	28.7	24.7	-6.5	-3.0
운수 · 보관	14.9	13.0	12.1	-2.7	-1.4
통신 · 방송	11.2	4.7	3.1	-15.9	-8.0
금융 · 보험	15.5	9.7	6.2	-8.9	-8.6
부동산 · 사업서비스	9.4	6.1	7.5	-8.3	4.2
공공행정 · 국방	18.3	13.6	10.2	-5.8	-5.6
교육 · 보건	21.0	17.5	16.0	-3.6	-1.8
사회 · 기타 서비스	32.7	24.2	17.5	-5.8	-6.3
전 산 업	14.8	10.9	8.7	-5.9	-4.4

나. 고용계수

2005년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고용계수⁶⁾는 6.1(명/10억원, 이하 같음)을 기록하여, 1995년(9.8), 2000년(7.0)에 이어서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의 고용계수가 10.4로 가장 높은 가운데, 주요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9.2, 농림어업 4.1, 제조업 3.0 등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내에서는 인쇄·복제(7.4), 섬유·가죽제품(7.2), 정밀기기(6.7), 기타제조업제품(6.4) 등의 업종에서 고용계수가 높은 반면, 석유·석탄제품(0.2), 제1차금속(1.0), 화학제품(2.6) 등의 업종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또한 서비스업의 경우 교육·보건(14.6), 도·소매(11.6), 음식·숙박(11.5) 사회·기타서비스(10.6) 등의 업종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통신·방송(3.0), 금융·보험(6.2), 부동산·사업서비스(6.8) 등의 업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2000년 이후 주요 산업의 고용계수 변화를 살펴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연평균 5.6%, 2.4% 하락한 반면, 건설업의 경우 1995년 8.8, 2000년 9.6, 2005년 10.4로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산출액 단위당 피용자 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불변가격 산출액 10억원당 소요되는 피용자 수(피용자 수(명)÷산출액(10억원))이다.

〈표 8〉

산업별 고용계수 추이

(단위 : 명/10억원, %)

	1995년	2000년	2005년	연평균 증감률	
				'95~'00	'00~'05
농 립 어 업	6.7	4.2	4.1	-8.9	-0.5
광 업	9.8	5.3	5.0	-11.6	-1.2
제 조 업	7.0	4.0	3.0	-10.6	-5.6
음 식 료 품	5.3	3.0	2.8	-10.8	-1.4
섬유 · 가죽 제품	17.8	9.9	7.2	-11.1	-6.2
목재 · 종이 제품	7.1	5.4	4.6	-5.3	-3.2
인쇄 · 복제	11.9	8.8	7.4	-5.9	-3.4
석유 · 석탄 제품	0.4	0.2	0.2	-12.9	0.0
화학 제품	5.7	2.8	2.6	-13.3	-1.5
비금속광물 제품	9.2	5.5	4.0	-9.8	-6.2
제1차금속 제품	2.3	1.2	1.0	-12.2	-3.6
금속 제품	8.6	6.8	5.5	-4.6	-4.2
일반 기계	9.7	6.5	4.6	-7.7	-6.7
전기 · 전자 기기	12.4	5.6	3.1	-14.7	-11.2
정밀 기기	13.8	8.9	6.7	-8.4	-5.5
수송 장비	6.8	3.8	2.8	-11.0	-5.9
기타 제조업 제품	18.2	9.9	6.4	-11.5	-8.4
전력 · 가스 · 수도	3.3	2.2	1.5	-7.8	-7.4
건설업	8.8	9.6	10.4	1.8	1.6
서비스	14.2	10.4	9.2	-6.0	-2.4
도 · 소매	14.9	14.5	11.6	-0.5	-4.4
음식 · 숙박	18.8	12.5	11.5	-7.8	-1.7
운수 · 보관	11.5	9.5	8.4	-3.7	-2.4
통신 · 방송	11.0	4.5	3.0	-16.4	-7.8
금융 · 보험	15.4	9.7	6.2	-8.8	-8.6
부동산 · 사업서비스	7.0	5.0	6.8	-6.5	6.3
공공행정 · 국방	18.3	13.6	10.2	-5.8	-5.6
교육 · 보건	18.8	15.5	14.6	-3.8	-1.2
사회 · 기타 서비스	19.2	13.3	10.6	-7.1	-4.4
전 산 업	9.8	7.0	6.1	-6.5	-2.7

2. 노동유발효과

가. 산업별 노동유발효과

1) 취업유발계수

2005년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⁷⁾는 14.7(명/10억원, 이하 같음)로 나타나, 1995년(24.4), 2000년(18.1)에 이어서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의 취업유발계수가 51.1로 가장 높은 가운데, 다음으로 서비스업(18.4), 건설업(16.6), 제조업(10.1) 등의 순이었다.

주요 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대체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건설업은 1995년 이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음식료품(24.7), 섬유·가죽제품(17.2), 인쇄·복제(17.1) 등의 업종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석유·석탄제품(1.0), 제1차금속제품(5.1) 등의 업종에서는 취업유발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그쳤다.

그리고 서비스업의 세부업종별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음식·숙박(37.8), 도·소매(30.4), 사회·기타서비스(24.9), 교육·보건(20.2) 등의 업종이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통신·방송(9.7), 금융·보험(10.5) 등의 업종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7)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표 9〉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추이

(단위 : 명/10억원, %)

	1995년	2000년	2005년	연평균 증감률	
				'95~'00	'00~'05
농 립 어 업	75.6	62.9	51.1	-3.6	-4.1
광 업	15.3	9.8	10.4	-8.5	1.2
제 조 업	19.3	13.2	10.1	-7.3	-5.2
음 식 료 품	36.0	32.3	24.7	-2.1	-5.2
섬유 · 가죽 제품	34.6	22.7	17.2	-8.1	-5.4
목재 · 종이 제품	16.1	14.3	12.3	-2.3	-3.0
인쇄 · 복제	21.8	19.5	17.1	-2.2	-2.6
석유 · 석탄 제품	1.1	0.9	1.0	-3.9	2.1
화학 제품	15.7	9.7	8.5	-9.2	-2.6
비금속광물 제품	20.5	13.8	11.0	-7.6	-4.4
제1차금속 제품	8.4	5.3	5.1	-8.8	-0.8
금속 제품	18.4	14.1	12.9	-5.2	-1.8
일반기계	21.2	16.0	12.2	-5.5	-5.3
전기 · 전자 기기	28.7	14.5	8.3	-12.8	-10.6
정밀 기기	27.5	19.4	13.9	-6.7	-6.5
수송 장비	19.6	12.7	9.9	-8.3	-4.9
기타 제조업 제품	31.0	21.4	16.4	-7.1	-5.2
전력 · 가스 · 수도	8.1	5.3	3.6	-8.1	-7.4
건설업	17.5	17.0	16.6	-0.6	-0.5
서비스	29.5	21.5	18.4	-6.1	-3.1
도 · 소매	48.7	40.0	30.4	-3.9	-5.3
음식 · 숙박	61.7	43.0	37.8	-7.0	-2.5
운수 · 보관	19.8	16.5	15.4	-3.6	-1.4
통신 · 방송	17.8	12.8	9.7	-6.4	-5.4
금융 · 보험	21.3	13.9	10.5	-8.2	-5.5
부동산 · 사업서비스	16.6	10.6	11.7	-8.6	2.0
공공행정 · 국방	25.9	18.4	14.7	-6.6	-4.4
교육 · 보건	25.2	21.4	20.2	-3.2	-1.1
사회 · 기타 서비스	43.0	32.3	24.9	-5.6	-5.1
전 산 업	24.4	18.1	14.7	-5.8	-4.1

2) 고용유발계수

한편, 2005년 우리나라 전체산업의 고용유발계수⁸⁾는 9.9(명/10억원, 이하 같음)로 나타났다. 동 계수도 취업유발계수와 마찬가지로 1995년(15.8), 2000년(11.1)에 이어서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주요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고용유발계수가 14.8로 가장 높은 가운데 서비스업(12.6), 제조업(7.2), 농림어업(7.2) 등의 수준으로 나타나 주요 산업 대부분의 고용유발계수가 하락세를 보였지만, 건설업의 경우 1995년 이후 15.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유발계수를 세부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섬유·가죽제품(13.2), 인쇄·복제(13.0), 기타제조업제품(12.2), 정밀기기(11.6) 등의 업종이 높게 나타났으나, 석유·석탄제품(0.7), 제1차금속제품(4.0) 등의 업종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아울러 서비스업의 경우 교육·보건(17.4), 음식·숙박(16.5), 사회·기타서비스(15.5), 도·소매(15.2) 등의 경우 고용유발계수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고, 통신·방송(7.5), 금융·보험(9.6) 등의 업종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8)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피용자 수를 의미한다.

〈표 10〉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추이

(단위 : 명/10억원, %)

	1995년	2000년	2005년	연평균 증감률	
				'95~'00	'00~'05
농 립 어 업	11.6	7.4	7.2	-8.6	-0.5
광 업	13.6	8.0	8.3	-10.1	0.7
제 조 업	14.2	8.8	7.2	-9.1	-3.9
음 식 료 품	12.4	8.4	8.0	-7.5	-1.0
섬유 · 가죽 제품	28.9	18.0	13.2	-9.0	-6.0
목재 · 종이 제품	13.3	10.9	9.4	-3.9	-2.9
인쇄 · 복제	18.9	14.9	13.0	-4.6	-2.7
석유 · 석탄 제품	0.9	0.7	0.7	-4.9	0.0
화학 제품	12.9	7.5	6.7	-10.3	-2.2
비금속광물 제품	18.0	11.2	8.8	-9.1	-4.7
제1차금속 제품	7.1	4.2	4.0	-10.0	-1.0
금속 제품	14.9	11.0	10.0	-5.9	-1.9
일반기계	18.2	12.9	10.0	-6.7	-5.0
전기 · 전자 기기	24.3	11.6	6.9	-13.7	-9.9
정밀 기기	23.7	15.8	11.6	-7.8	-6.0
수송 장비	16.7	10.4	8.2	-9.0	-4.6
기타 제조업 제품	26.7	15.6	12.2	-10.2	-4.8
전력 · 가스 · 수도	7.1	4.7	3.2	-7.9	-7.4
건설업	15.2	14.6	14.8	-0.8	0.3
서비스	18.9	13.7	12.6	-6.2	-1.7
도 · 소매	19.6	17.6	15.2	-2.1	-2.9
음식 · 숙박	27.0	17.1	16.5	-8.7	-0.7
운수 · 보관	15.0	11.8	10.7	-4.7	-1.9
통신 · 방송	15.5	9.5	7.5	-9.3	-4.6
금융 · 보험	19.5	12.7	9.6	-8.2	-5.4
부동산 · 사업서비스	12.2	8.2	9.8	-7.6	3.6
공공행정 · 국방	23.3	16.5	13.0	-6.7	-4.7
교육 · 보건	21.4	18.0	17.4	-3.4	-0.7
사회 · 기타 서비스	26.0	18.5	15.5	-6.6	-3.5
전 산 업	15.8	11.1	9.9	-6.8	-2.3

3) 산업별 간접 취업유발효과

2005년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별 간접 취업유발효과⁹⁾를 살펴보면, 농림어업이 8.5(명/10억원, 이하 같음)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제조업 6.7, 건설업 6.1, 서비스업 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 취업유발효과에 대한 간접 취업유발효과의 비율인 간접 취업유발률은 제조업 197.1%, 건설업 58.1%, 서비스업 40.5%, 농림어업 20.0% 등의 수준으로 나타나, 제조업의 경우 간접 취업유발률이 서비스업에 비해서는 약 5배, 건설업에 비해서는 약 3배 수준을 기록하였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세부 업종별 간접 취업유발률을 보면, 제조업의 경우 업종 대부분이 100%를 초과한 가운데 음식료품(533.3%), 제1차금속제품(410.0%), 석유·석탄제품(400.0%), 수송장비(241.4%) 등의 업종에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인쇄·복제(92.1%), 정밀기기(93.1%), 금속제품(95.5%) 등의 업종은 100%를 하회하였다.

또한 서비스업의 경우 통신·방송(212.9%)의 간접 취업유발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도·소매(19.7%), 교육·보건(26.3%), 운수·보관(27.3%) 등 대부분의 업종들은 낮은 수준을 보이는 데 그쳤다.

9) 특정 산업의 최종수요 10억원 발생시 해당 산업 이외의 산업에서 간접적으로 발생된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간접 취업유발효과 = 취업유발계수 - 취업계수)

〈표 11〉

산업별 간접 취업유발효과

(단위 : 명/10억원, %)

	총유발인원 (A)	직접유발인원 (B)	간접유발인원 (C=A-B)	간접유발률 (C/B)
농 립 어 업	51.1	42.6	8.5	20.0
광 업	10.4	5.4	5.0	92.6
제 조 업	10.1	3.4	6.7	197.1
음 식 료 품	24.7	3.9	20.8	533.3
섬유 · 가죽 제품	17.2	8.6	8.6	100.0
목재 · 종이 제품	12.3	5.2	7.1	136.5
인쇄 · 복제	17.1	8.9	8.2	92.1
석유 · 석탄 제품	1.0	0.2	0.8	400.0
화학 제품	8.5	2.7	5.8	214.8
비금속광물 제품	11.0	4.3	6.7	155.8
제 1 차 금속 제품	5.1	1.0	4.1	410.0
금속 제품	12.9	6.6	6.3	95.5
일반기계	12.2	5.0	7.2	144.0
전기 · 전자 기기	8.3	3.2	5.1	159.4
정밀 기기	13.9	7.2	6.7	93.1
수송 장비	9.9	2.9	7.0	241.4
기타 제조업 제품	16.4	8.1	8.3	102.5
전력 · 가스 · 수도	3.6	1.5	2.1	140.0
건설업	16.6	10.5	6.1	58.1
서비스	18.4	13.1	5.3	40.5
도 · 소매	30.4	25.4	5.0	19.7
음식 · 숙박	37.8	24.7	13.1	53.0
운수 · 보관	15.4	12.1	3.3	27.3
통신 · 방송	9.7	3.1	6.6	212.9
금융 · 보험	10.5	6.2	4.3	69.4
부동산 · 사업서비스	11.7	7.5	4.2	56.0
공공행정 · 국방	14.7	10.2	4.5	44.1
교육 · 보건	20.2	16.0	4.2	26.3
사회 · 기타 서비스	24.9	17.5	7.4	42.3
전 산 업	14.7	8.7	6.0	69.0

나.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효과

2005년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¹⁰⁾를 보면 소비 17.8(명/10억원, 이하 같음), 투자 13.6, 수출 10.8의 순으로 나타나, 소비에 의한 취업유발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0년과 비교하면 수출의 취업유발계수가 연평균 6.7% 하락함에 따라 소비(-3.6%)와 투자(-1.9%)의 하락폭을 상회하였다. 이와 같이 수출의 취업유발계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던 것은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정보통신 부문의 수출비중이 빠르게 상승한 반면 동 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섬유·가죽제품 등의 수출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진 데 주로 기인한다.¹¹⁾

		1995년	2000년	2005년	연평균 증감률	
					'95~'00	'00~'05
소	비	29.3	21.4	17.8	-6.1	-3.6
투	자	18.4	15.0	13.6	-4.0	-1.9
수	출	24.0	15.3	10.8	-8.6	-6.7
평	균	24.8	18.4	14.9	-5.8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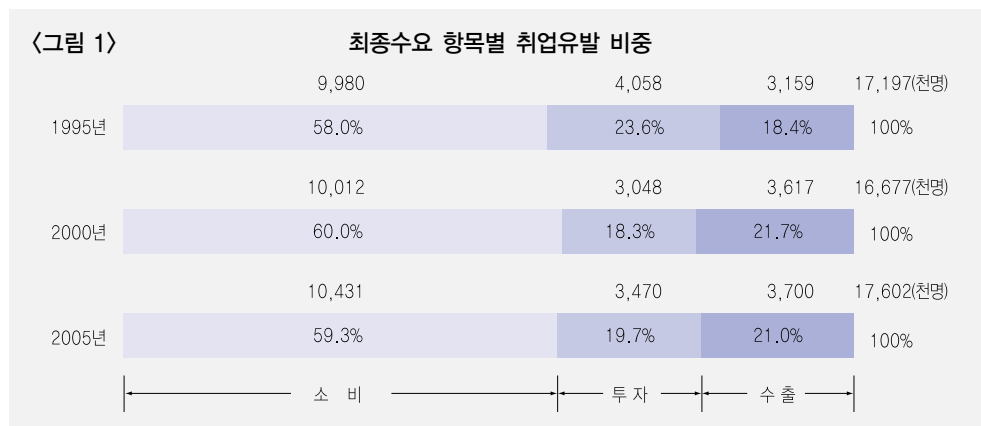
10)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인원(명)을 항목별 최종수요액(10억원)으로 나누어 계산되며, 최종수요 항목별로 유발된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11) 정보통신제품 및 섬유·가죽제품의 연도별 수출비중은 아래와 같다.

	'95년	'00년	'05년
정보통신제품 수출비중(%)	11.1	16.7	29.8
섬유·가죽제품 수출비중(%)	14.2	8.9	4.1

한편, 2005년 취업자 17,602천명에 대한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 비중을 계산한 결과 소비에 의하여 유발된 취업자가 10,431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59.3%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수출 3,700천명(21.0%), 투자 3,470천명(19.7%)의 순이었다.

2000년과 비교하여 보면 취업유발계수 하락폭이 가장 작았던 투자의 취업유발 비중이 1.4%포인트 높아진 반면, 소비와 수출은 각각 0.7%포인트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시사점

「2005년 고용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00년 대비 취업자 수가 증가로 반전된 가운데 기업의 고용 유연성 강화 등으로 상용직보다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더 많이 증가하였으며, 농·어촌 인구 및 영세도·소매점포 감소 등으로 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는 감소하였다. 또한 산업별로는 서비스업·건설업의 취업자 비중은 상승한 반면 제조업·농림어업 비중은 하락하였고, 직종 전문화 및 고학력화 추세를 반영하여 전문직과 대졸이상 취업자 비중이 높아졌으며, 여성 취업자 증가폭이 남성에 비해 적어 여성 취업자 비중이 하락하였다.

아울러 전체 산업의 취업계수와 취업유발계수는 설비투자 증가 및 기술수준 향상 등에 따른 노동 생산성의 개선으로 하락 추세를 지속함에 따라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최종수요 항목별로는 정보통신산업 제품 비중 증가 등으로 수출의 취업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고용관련 정책수립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고용 창출을 위한 노력 제고)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으므로 고용 창출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아 신성장산업으로 평가되는 생산자서비스¹²⁾,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관련 부문에 대한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경제 선진화 및 사회구조 변화에 의하여 향후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사회복지, 교육, 보건·의료 등의 부문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또한 간접 취업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정체 상태에 있는 제조업 부문의 경우 국내생산 확대를 통하여 고용창출 및 파급여력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가격의 국제 경쟁력 강화, 기업환경 개선 등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12) 유통·물류, 금융, 통신, 디자인, 컨설팅 등의 산업을 포함한다.

한편 농·어촌지역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농림어업의 기반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의 미숙련 노동공급 과잉으로 이어져 고용사정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농림어업의 안정적 발전과 지역균형 개발을 위하여 농림어업을 제조업 및 서비스업과 연계시키는 이른 바 농림어업의 '6차 산업화¹³⁾' 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용의 질적 수준 개선)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급속한 증가는 미숙련·불안정 고용에 의한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는 고용의 양과 질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의 양산에 의한 고용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숙련 상용직 위주로 고용이 이루어져 경제전반에 걸쳐 생산성 제고 → 고용 증가의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고용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노동의 수급 균형 확보)

취업자의 고학력·전문직화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노동 수급상의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년실업 및 마찰적 실업 증가와 같은 고용시장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문직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고학력 인력의 과잉공급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기관과 산업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턴취업 기회 부여 등 직장체험 확대, 채용 설명회 내실화, 직업진로 지도 및 재취업 교육 강화 등 노동시장 균형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성 취업의 점진적 확대)

여성 취업자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추세 및 고령화 사회 진전에 따른 향후 노동 공급

13) 농림수산물 생산(1차산업), 농림수산물 제·특산물 가공(2차산업), 직판장 및 음식·숙박·관광(3차산업) 등을 연계함으로써 농·어촌지역에서의 고용 창출 및 소득 향상을 유도하는 것을 뜻한다.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 대안의 하나이므로 여성 취업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교육, 보건·의료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여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여성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출기업과 부품 생산기업의 연계 강화)

수출의 취업유발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과 국내 관련부품 생산기업간의 긴밀한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수출기업과 부품 생산기업이 제조공정상 상생·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Full-Set형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수출 호조가 기업 투자증대로 연결되도록 기업 규제완화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기업의 중간재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부품·소재산업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핵심기술 보유인력 양성, 산·학·연 협동체제 구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제통계국 투입산출팀 차장 국맹수〉